



미 증시, 물가, 차익실현, 침체 부담 등에 급락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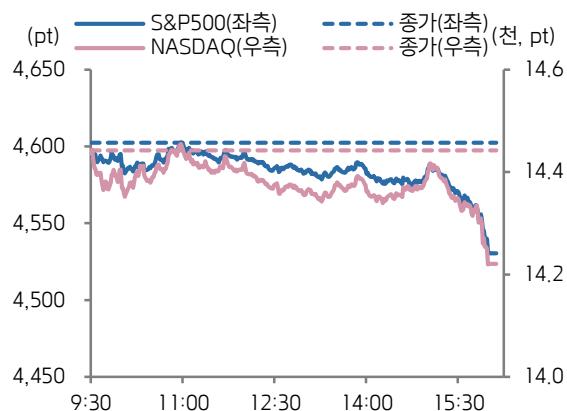
31 일 (목)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경계감 재부각, 장단기 금리차 축소 우려 지속, 월말 차익실현 압력 등으로 급락. 미국 3 월 PCE 물가 지수는 전년대비 6.4%(전월 +6.0%), 근원 지표는 전년대비 5.4%(예상 +5.5%, 전월 +5.2%)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물가 압력이 확대됨. S&P500 지수는 0.2% 하락 출발 이후 약보합권에서 등락하다 장 막판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1%대 하락 마감.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금주 역전되었던 일드커브로 인한 침체 우려감,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 축소 등이 있었음(다우 -1.56%, S&P500 -1.57%, 나스닥 -1.54%, 러셀 2000 -1.0%).

이날 OPEC+는 기존 계획보다 40 만 배럴 더 큰 증산 계획을, 백악관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계획(하루 100 만 배럴)을 발표하면서 유가는 6~7%대로 급락. 한편 미국 3 월 시카고 PMI는 62.9pt(예상 57.0pt, 전월 56.3pt) 개선,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.2 만건(전주 18.8 만건)으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.

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, 금융(-2.3%), 통신(-2%), 경기소비재(-1.9%)의 낙폭이 가장 컸음. 한편 유틸리티(-0.2%), 필수소비재(-0.4%), 부동산(-1.2%)의 낙폭이 가장 작았음. 에너지(-1.4%)는 유가 급락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1%대로 하락.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섹터는 여행 레저였음. 카니발(+3.2%), 엑스피디아(+1.8%) 등 리오프닝 주들은 상승. 유나이티드(+1.1%), 아메리칸(+1.1%) 등 항공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다우 항공 섹터 지수는 0.6% 상승 마감. 전일 3%대 급락한 반도체 지수는 2.3% 하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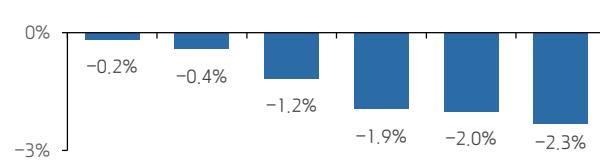
종목별로 애플(-1.8%), 알파벳(-2.1%), 메타(-2.4%) 등 대형 기술주, JP 모건(-3.0%), BOA(-4.1%) 등 은행주, 아마존(-2.0%), 테슬라(-1.5%), 나이키(-2.9%) 등 소비재, AMD(-8.3%), 엔비디아(-1.5%), 인텔(-3.6%) 등 반도체주, 로빈후드(-7.2%), AMC(-4.1%) 등 미스틱, 알리바바(-6.7%), 디디(-15.0%) 등 중국 ADR 주 모두 하락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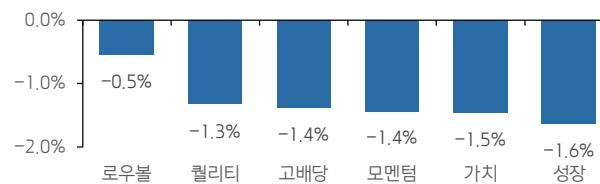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530.41	-1.57%	USD/KRW	1,211.93	+0.18%
NASDAQ	14,220.52	-1.54%	달러 지수	98.36	+0.58%
다우	34,678.35	-1.56%	EUR/USD	1.11	+0.01%
VIX	20.56	+6.36%	USD/CNH	6.35	+0%
러셀 2000	2,070.13	-1%	USD/JPY	121.71	+0.01%
필라. 반도체	3,429.00	-2.27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6,283.02	-1.59%	국고채 3년	2.662	+4.2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2.965	+8bp
Eurostoxx50	3,902.52	-1.43%	미국 국채 2년	2.335	+2.8bp
MSCI 전세계 지수	711.56	-1.32%	미국 국채 10년	2.338	-1.1bp
MSCI DM 지수	3,096.67	-0.45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149.30	+1.13%	WTI	100.28	-6.99%
MSCI 한국 ETF	71.23	-0.45%	금	1954	+0.77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45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51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05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215.2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1. 국제 유가 급락이 국내 원자재 베타 높은 업종들에게 미치는 영향

주요 체크 사항

2. 장 시작전 발표되는 한국의 3 월 수출(예상 17.5%)
3. 미국 3 월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지표를 둘러싼 경계심리의 국내 증시 유입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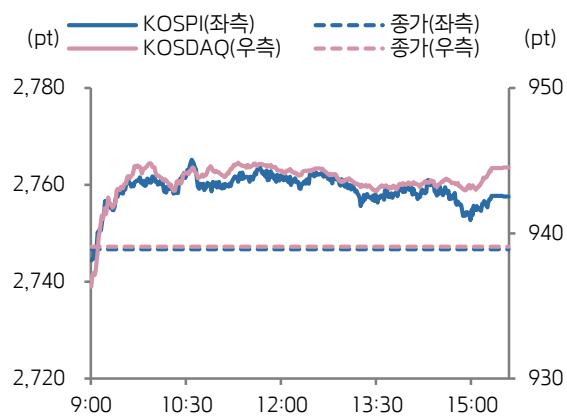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연준이 근원 CPI (소비자물가)보다 더 주목하는 2 월 근원 PCE(개인소비지출물가)는 5.4%(YoY)로 1980 년대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내 인플레 압력이 높았음을 확인. 물론 시장 예상치(5.5%)를 하회했다는 점이 안도요인이 될 법 하지만,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3 월, 4 월 인플레이션 수치임. 3 월 미국 소비자물가(12 일 예정)는 현재 컨센서스가 7.9%대로 형성됐지만, 3 월 이후 높은 에너지 가격 수준을 반영 시 8%대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. 이에 더해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 대금에 대한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는 등 향후에도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민감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휴전 이슈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, 주요국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감소 및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. 31 일 미국 정부는 지난 11 월 5,000 만 배럴, 3 월 초 3,000 만배럴에 이어 1 억 8,000 만배럴(일 평균 100 만배럴, 3 개월간)이라는 역대급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. 금번 OPEC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추가 증산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서방국가와 또 다른 지정학적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. 하지만 현재는 원유가격 방향성 자체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며, 또 이들 입장에서는 과거 유가 급락기의 경험으로 인한 대규모 증산 혹은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, 증시 입장에서는 금번 OPEC 회의를 종립 수준의 재료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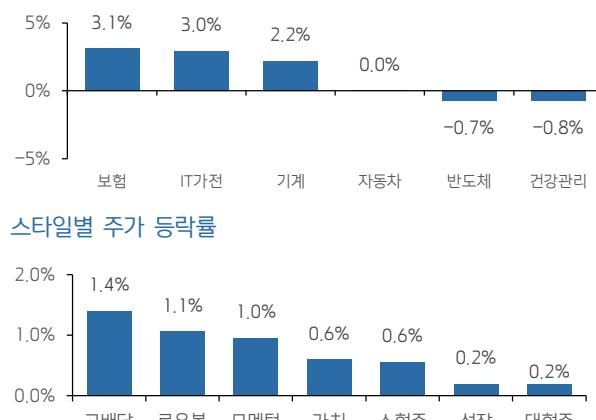
금일 국내 증시는 국제 유가 급락, 실적 시즌 기대감 등 상방 요인, 미국 고용지표 경계심리, 장단기금리차 축소 논란 등 하방 요인들이 혼재하면서 제한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.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AMD(-8.2%) 등 대형 테크주들이 급락한 것은 일부 외사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, 분기말 리밸런싱 및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차익실현 압력의 영향도 있던 만큼,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. 또한 장 시작 전 발표되는 한국의 3 월 수출(예상 17.5%YoY, 전월 20.6%)도 장중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itativ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	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	
고지사항	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	